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철도공단, 의정부·인천 지역 행복주택사업 본격 추진

-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인천 주안역 인근 총 3개동 306가구 건설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일대 舊)변전소 부지(4,978㎡)와 인천 주안역 인근 유휴 철도 부지(1,940.3㎡)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사업 사업허가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9월 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의정부 호원지구 및 인천 주안역지구 행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9월 중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의정부 호원지구는 총2개동 166가구, 인천 주안역지구는 1개동 14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김영하 본부장은 “철도부지를 이용한 행복주택사업으로 많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사회취약계층이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지역에 거주하는 편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용마루지구, 수원시 매탄동, 안양 인덕원, 수인선 고색역 등의 행복주택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국민 편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철도공단, ‘베트남 철도학교’ 통해 철도건설 노하우 전수

- 베트남 철도발전 기여 및 한국기업 진출 기반 마련 -



해외사업본부(본부장 오재욱)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OT), KOTRA와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철도학교를 운영하여 베트남 철도청을 비롯한 교통부 산하 8개 철도 관련 기관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철도지식과 기술을 전파했다.

공단은 해외 CSR(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이집트에 최초로 철도학교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집트(3월, 2차), 인도(5월)에 이어 3번째로 베트남에 철도학교를 개설, 이어 라오스(9.21~9.23), 몽골, 콜롬비아(이상 세부계획 협의중) 등 철도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철도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해외사업본부는 철도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강의 내용을 직접 기획하고 있으며, 기존철도 개량사업 및 한국철도 구조개혁 사례 등 해당국가의 요구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안을 준비하는 한편, 철도건설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기업의 철도전문가들도 강사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오재욱 해외사업본부장은 “해외철도학교를 통해 우수한 한국 철도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철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는 물론이며, 동시에 베트남정부가 추진 중인 호치민~나짱 준고속철도사업, 호치민,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CSR과 상생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시설공단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분임조활동을 통한 자율적 지식혁신활동 우수사례 전파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진행된 2015년 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3개 팀이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자유형식, 상생협력, 환경안전품질 부문에 참가하여 원가절감, 품질·생산성 향상방안, 고객만족 개선사항 등 품질혁신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3개팀의 우수사례를 보면, 자유형식부문의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 설계기준 개선으로 공사비용 절감”에서는 해외사례, 시험시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경제적 설계기준 마련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사업비 약 7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중소협력사 상생협력을 통한 인지도 향상으로 해외사업 수주 증대’라는 주제로 국제 철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력 공유,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해외사업 포럼 및 웹 홍보물 발송 등 WIN-WIN전략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역량을 향상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환경안전품질 부문에서는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방법 개선으로 안전관리목표지수 감소’라는 주제로 KR 재난알리미 구축, 신규근로자 안전체험교육 의무 시행, 품질환경 안전지수제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무재해 달성 등 안전한 철도건설현장의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우리 공단 임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적 지식혁신 활동이 기존 고정관념의 틀을 깨으로써 오늘의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질분임조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공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붙임] 2015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발표주제 요약(3개팀)

주제1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 설계기준 개선으로 공사비 절감

소속	안전품질실(품질환경)	발표자	박선희 과장, 유일권 대리									
팀원	임찬규, 박선희, 유일권, 고동만, 박대혁, 이동호, 공영식, 신동희											
자유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토목기술 및 장비 등의 발전에 따라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최적화 제시 필요 ○ 철도터널의 장대화 및 수량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효율적 기준 마련 필요 ○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최적화를 통하여 경제 설계/시공을 통한 투자 효율 제고 □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터널 무근구간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최적화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개정 요청(2015.01.29.) * KR C-12030 (터널 지보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선전</th> <th>개선전</th> </tr> </thead> <tbody> <tr> <td>패턴</td> <td>지보패턴1-3</td> <td>지보패턴1-3</td> </tr> <tr> <td>라이닝두께 (mm)</td> <td>300 (무근)</td> <td>300 (무근)</td> </tr> </tbody> </table> □ 개선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최적화를 통한 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사업비 750억원 절감 기대 ○ 설계 및 시공업무 효율성 제고로 자원절감 기여 			구분	개선전	개선전	패턴	지보패턴1-3	지보패턴1-3	라이닝두께 (mm)	300 (무근)	300 (무근)
구분	개선전	개선전										
패턴	지보패턴1-3	지보패턴1-3										
라이닝두께 (mm)	300 (무근)	300 (무근)										

주제2 중소기업사 상생협력을 통한 인지도 향상으로 해외사업 수주 증대

소속	해외사업본부 해외기획처(국제협력)	발표자	심아영 과장, 김지연 사원
팀원	심아영, 김지연, 기득서, 송재일, 박만호, 송창현, 전재은, 류선태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철도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05년부터 공단의 해외사업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사와 해외사업 동반진출 필요 □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해외건설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 웹 홍보물을 자체 제작·발송하여 공단과 협력사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물론 해외 철도관련 정보를 협력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외철도시장 진출 계기 마련 ○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의 함으로써 공단과 협력사간 기술, 인적, 정보, 해외네트워크 등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해외철도사업 수주능력 향상 도모로 해외사업동반 수주 □ 개선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과 협력사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경쟁력 확보 ○ 공단 및 협력사의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 ○ 초청연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7천만원 수익창출 		

주제3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방법 개선으로 안전관리목표지수 감소

소속	충청본부 건설기술처(안전사업)	발표자	안세한 대리, 노춘선 대리
팀원	김순일, 안세한, 노춘선, 권순환, 이병길, 윤정일, 박준영, 최정은		
환경안전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지역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관리방법 개선을 통해 인명피해, 점검지적 건수 감소 등의 목표 달성 필요 □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근로자 안전체험교육 의무 시행 방침수립으로 교육 미 이수자의 위험공종 투입 금지토록하고, 교육이수자 및 위험공종 참여자 실적을 매월 확인하여 현장안전평가에 반영토록 함 ○ KR 재난알리미 및 그룹채팅방 활용으로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사고발생 시 지연되었던 보고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동조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 발생 ○ 품질환경안전지수제 실시로 시공계획서 및 작업위험성 평가 등 현장 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지수화하여 정량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점검에 대비하고 안전한 현장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개선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본부 2014년 무재해 달성 ○ 충청본부 안전관리목표지수 목표달성 ○ 안전분야 모범부서로 이미지 향상 및 사고 최소화 노력으로 불안감 해소 		

철도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꼼짝 마!

- 철도공단,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 -

기획재정부(본부장 박인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354개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명절 전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단은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로 중소기업, 건설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임금 체불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근로자까지 임금이 정상지급 되는지를 모니터링 해 나가는 한편,

추석 기성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대금지급 업무의 폭주가 예상되는 9월 17일부터 9월 25까지 공단 내에 '추석 기성대금 적기지급 특별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철도건설 근로자들에게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철도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해소함으로써 임금 체불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 공공기관 최초 5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수상

- 국민중심의 안전한 철도건설, 사회적 책임 노력 등 인정받아 -



(좌) 박인서 기획재정부(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우) 백수현 한국표준협회장

기획재정부(본부장 박인서)는 9월 15일(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1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KRCA :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수상했다.

KRCA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와 함께 경제, 사회, 환경 정책 등에 대해 국제기준(GRI)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전문가 그룹, 이해관계자(소비자, 협력사, NGO 등)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이번 대회에는 104개 기업이 참여하여 철도공단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철도공단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포항지결선(신경주~포항),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KTX 수혜지역 확대 등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노후시설물 개량 및 스크린도어 설치 등을 통한 철도 안전성 강화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량 및 선로변 방음벽 설치 등 철도 이용 환경을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4년 청렴 위기상황에서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반부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적·제도적 부패유발 요인 제거, 청렴윤리 의식 내재화 등 4개 분야 33개 실행과제의 철도신뢰 회복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불공정관행 개선,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문화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았다.

강영일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공단이 이룩한 성과는 정부, 고객,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전과 창의의 조직문화를 근간으로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충북선 하부 횡단 '궁평2지하차도' 신설

- 오송~청주공항 연결... 지역주민 편의 향상 -

시설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에서 신촌리까지 도로개설 구간 중 충북선 철도 하부를 횡단하는 궁평2지하차도(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신설공사를 오는 10월 본격 착공하여 2017년 말 개통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본 공사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요청에 따라 오송~청주공항간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열차가 운행 중인 충북선 철도 하부를 횡단하는 4차선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69억원의 행복청에서 부담하고 철도공단에서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철도시설공단과 행복청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되며, 공단은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해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여 2017년 준공 후 시설물을 행복청에 인계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지하차도가 완공되면 세종시~청주공항간 연계성이 향상되어 청주, 오송, 오창 등 인근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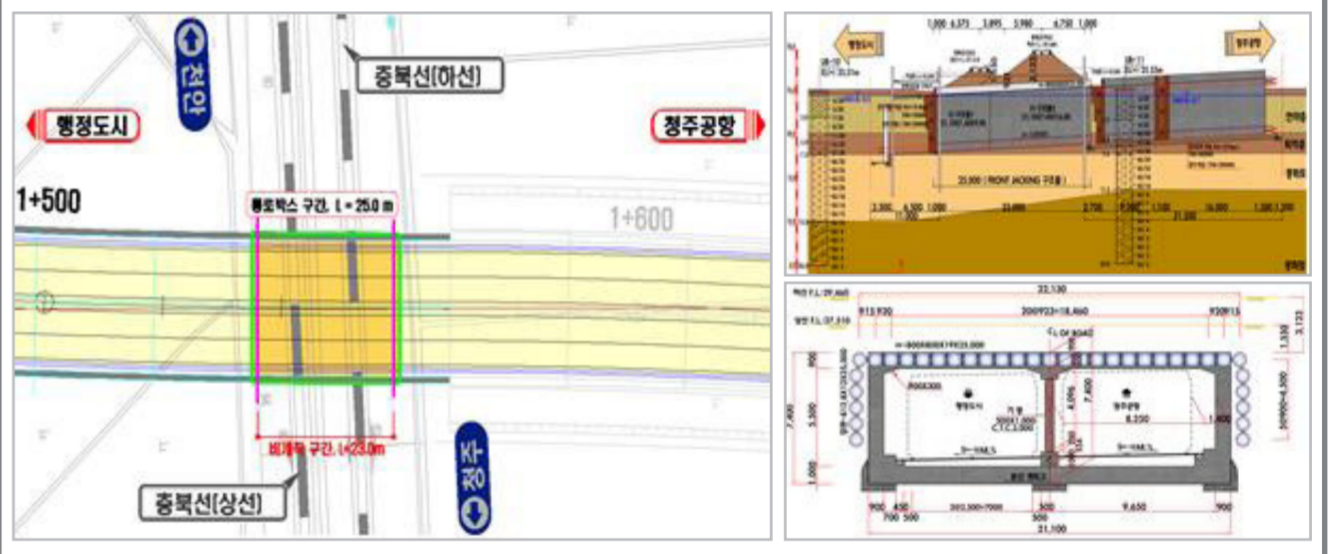
[참고] 궁평2지하차도 신설 수탁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충북선 오송~청주간 6km300지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247번지)
 - 사업내용 : 충북선 하부 횡단 비개착구간 L=25.0m (B=21.1m, 4차로)
 - 사업비 : 6,896백만원

□ 사업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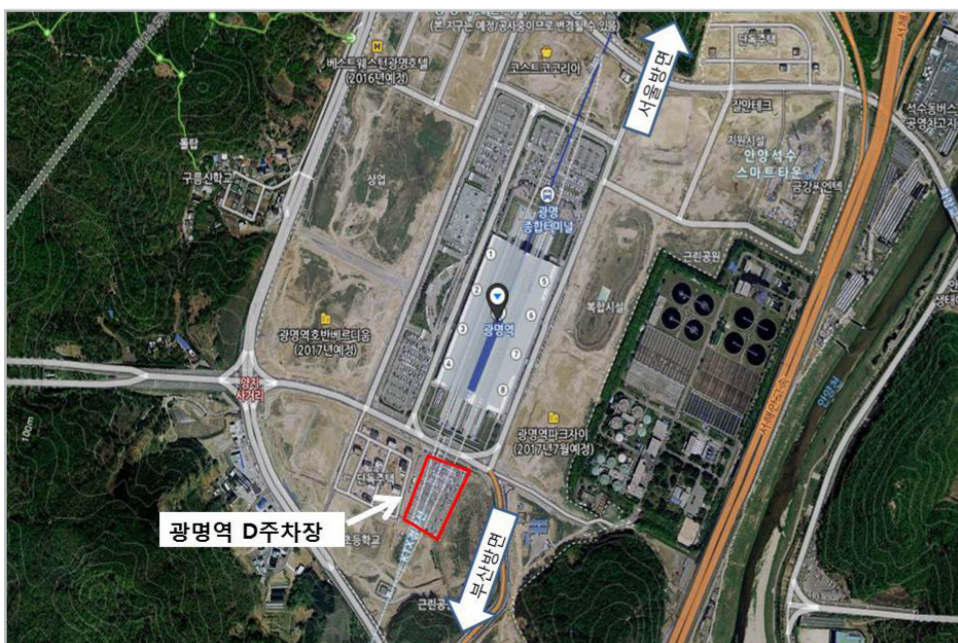


□ 횡단단면



철도공단, 광명역 주차장부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 9월 7일부터 사업주관자 공모, 9월 14일 사업설명회 개최 -



광명역,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본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과 국유철도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국유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본부(본부장 이수형)는 KTX 광명역의 D환승주차장 철도부지 약 12,270㎡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사업주관자를 공모하고, 9월 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9월 14일(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본부(용산구 청파로)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 사업신청자 자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대상부지인 KTX 광명역 D환승주차장은 KTX

철도공단, 안전파수꾼 'KR안전지도사' 신설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시 점검 -

안전품질실(실장 권오혁)은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KR안전지도사'를 신설하여 전국 운행선 인접공사가 진행되는 207개 현장, 542개 공사개소에 대해 9월 15일부터 상시 점검에 돌입한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는 기존 노후철도의 개량, 유지보수·보강 등을 위해 철도선로 30m 이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며, 열차운행사이에서 작업하거나 정기운행열차가 종료된 심야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져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열차 지연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KR안전지도사는 안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공단 직원들로 구성돼 주간(09:00~19:00) 열차사이 차단 작업 및 상계작업 현장과 야간(19:00~09:00) 차단작업 현장을 상시 점검하며 ▶무단 및 임의작업의 감시·통제 ▶불안전 인적행위에 대한 안전조치 ▶운행선 위험시설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KR안전지도사 활동과 더불어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작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이행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등 운행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그간 철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면서 "최근 운행선 공사개소의 증가 등으로 작업환경이 바뀌고 있고, 운행선에서의 사고 발생 시 국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므로 KR안전지도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2015년도 하반기 '철도안전 캠페인' 전개

- 철도안전문화 정착 위해 교통안전공단·코레일과 협업 -



안전품질실(실장 권오혁)은 9월11일(금)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하여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등 철도교통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서울역, 대전역 및 부산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역과 안전이 취약한 운행선 인접공사 건설현장 등에서 철도안전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철도공단은 철도안전 홍보 기념품 및 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철도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작업행위 금지 등을 당부하였고, 운행선 인접공사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도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철도안전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 및 교통편익을 위해 운행선 인접공사 구간의 사고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제정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도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항선 개량2단계 보령시 남포2,3터널 본격 착공

-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소음·진동 등 지속 모니터링 -

안전품질실(실장 권오혁)은 9월11일(금)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하여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등 철도교통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서울역, 대전역 및 부산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역과 안전이 취약한 운행선 인접공사 건설현장 등에서 철도안전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철도공단은 철도안전 홍보 기념품 및 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철도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작업행위 금지 등을 당부하였고, 운행선 인접공사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도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철도안전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 및 교통편익을 위해 운행선 인접공사 구간의 사고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제정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도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추석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1,950억원 지급

- 시스템 개선 및 특별지원반으로 공사대금 적기 집행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철도건설현장의 자금유동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약 1,950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전에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9월 17일부터 25일까지(9일간)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신청 폭주로 발생한 대금청구시스템(CPMS)의 지연, 오류 등의 협력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8월 대금청구시스템 운영체제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한 클라우드 방식 서버를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속도를 최대 8배까지 향상시키고 협력사 PC와의 호환성을 확대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한층 빠르고 안정적인 대금청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공사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 ERP특별지원반을 운영하여 협력사 온라인 업무처리 및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사대금이 협력사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작년에 특별지원반을 설치·운영한 결과 362건의 대금지급 요청을 받아 단 한건의 지연 없이 약 1,027억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며 "올 추석에도 철도협력업체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금지급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협력업체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궤도업체와 상생발전 방안 찾다

- '찾아가는 토론회'에서 애로사항 수렴·개선방안 공동모색 -



(아래 왼쪽 네번째 : 여대식 궤도공사협의회회장, 다섯 번째 : 김상태 기술본부장)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9월 1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하여 궤도분야 전반에 대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궤도공사협회, 궤도설계·공사·감리업체 등 18개 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시행했다.

공단은 본 토론회에서 중장기적인 궤도기술 발전 및 2016년도 궤도사업 중점 추진계획, KR형 레일체결장치 국산화 개발 현황,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궤도업계 관계자들은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궤도공사 적정공기 확보, ▲수급이 어려운 특수자재의 지급자재(원도급사에서 시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자재)화, ▲궤도자재 및 공사용 가설자재 대가 현실화, ▲측량관리자 경력인정 요건 완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공단은 향후 제도개선 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과 협조를 다짐하였다.

김상태 기술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도 궤도업계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론회'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공단과 궤도업체가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충청본부, 철로변 소외계층에 추석 성금 전달

- 대전 5개 복지기관에 따뜻한 명절나기 지원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9월 15일 대전시 하소동에 위치한 에덴노인요양원(원장 김영일)과 어남동의 은혜요양원(원장 김향중)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쓸쓸히 명절을 보낼 복지기관의 어르신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충청본부는 9월 16일에도 대전시 관내 복지기관 3곳(밀알복지관, 한줄기생활시설, 평화의마을아동복지센터)을 추가 방문하여 추석맞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병국 충청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로변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원주~강릉철도 연약지반 구조물공사 본격 착수

- 가교 설치 완료, 추경예산 2천920억원 집행 등 사업 추진 가속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원주~강릉 철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강릉시 운산동 초연약지반에 가교(본격적인 구조물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교량) 830m설치를 완료하고, 교량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14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일반적인 토사가 아닌 썩어 부스러진 나무 뿌리, 낙엽 등이 연약한 점성질토와 혼합되어 있어 장비 진입은 물론, 사람조차 통행이 곤란했던 지역으로 지난 7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과공법인 RCD공법*을 결정했다.

*RCD공법(역순환 굴착공법, Reverse Circulation Drill Method): 현장타설 말뚝 중 최대구경으로 굴착장비를 오르내릴 필요 없이 연속으로 굴착이 진행되므로 심도가 깊을수록 효율이 높음

최근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예정보다 1.3%포인트 높은 47.3%(8월 현재)의 공정률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24일 방문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은 동계올림픽 거점역인 진부역을 방문하여 원활한 철도사업추진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2,920억원이 반영되었고, 8월 10일 최정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환 강원본부장은 “원주~강릉철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7년 말 반드시 개통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맞추어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주야간 24시간 공사를 시행하는 등 적기에 개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가교 설치 현황

가교연장	가교 폭	경간장	경간수	비고
830m	8m	14m	82span	

건설(시설)현장 청렴 및 안전교육 실시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9월 8일, 9월10일~9월11일(3일간) 동안 관내 현장의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청렴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대비 비윤리 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과 최근 관내 건설·시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열차 운행상에 사고와 관련 현장관리자의 안전의식 강화, 현장

관리 철저 등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었다.

노병국 본부장은 협력사의 고충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토론했고, 이는 “협력사와 공단이 함께하는 청렴과 안전”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렴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본부 노춘선 기자)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

- 호남본부 관내 22개 건설현장 대상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추석명절 전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선다.

호남본부는 관내 진주~광양복선화 사업 등 22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로 중소기업, 건설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임금 체불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근로자까지 임금이 정상지급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 나갈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철도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해소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본부 황명훈 기자)

철도공단 호남본부, 도심 선로변·공원 추석맞이 대청소

- 순천시 조곡동 선로변 및 장대공원 일원 환경정비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9월 15일 순천시 조곡동 선로변과 인근 장대공원 일원에서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호남본부 직원 15명은 2012년부터 선로변에 식재하여 가꾸고 있는 넝쿨장미 250여 그루에 대한 가지 정리와 잡초제거 작업을 마치고, 인근 장대공원 일원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를 하였다.

또한 직원들은 순천시 가곡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예광마을을 찾아 추석맞이 대청소 봉사활동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단 관계자는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선로변 등에 대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하반기 청렴캠페인 시행

- 순천시 조곡동 선로변 및 장대공원 일원 환경정비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9월 11일(금)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순천역 광장 및 대합실에서 2015년도 하반기 청렴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이날 호남본부 직원들은 순천역 이용객들에게 전단지 및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단의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홍보하였다.

이날 청렴캠페인에는 이현정 본부장을 비롯하여 호남본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호남본부 김광석 기자)

수도권본부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

- 성심모자원(용산구), 한국농아인협회 남양주시지부(남양주시) -



수도권본부(김영하 본부장)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기부 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 16일 모자아동 지원센터인 성심모자원과 한국농아인협회 남양주시지부에 각각 성금 1,000,000원을 기부하였다.

수도권본부에서는 명절 이웃돕기뿐 아니라, 지역 장애인 사회 적응훈련 지원,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김영하 수도권본부장은 “작은 성의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말했다.

(수도권본부 송정미)

호남본부-순천소방서 연향19안전센터 합동 소방훈련

- 순천시 조곡동 선로변 및 장대공원 일원 환경정비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9월 17일(목) 오후 2시에 순천소방서 연향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2015년도 합동 소방훈련을 시행하였다.

이날 훈련은 기상시나리오에 따라 비상대피, 화재초기진압, 소방차량 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였다.

소방훈련을 참관한 김경표 연향19안전센터장은 “직원들이 신속하고 일상불란하게 화재 대피와 진압을 하는 광경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다져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평을 하였다.

(호남본부 김광석 기자)

주요기사(2015. 9. 4~9. 15)

2015. 09. 07. [월]

- ◆ 최 부총리, G20 상대로 전방위 경제외교 "중, 동북아개발은행 지지" (파이낸셜뉴스3)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첫걸음... 교통물류 협력 물고 튼다 (서울신문9)
- ◆ "남북 철도 연결돼야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완성" (중앙일보23)
- ◆ "대구광역시권 산업철도 건설" (영남일보1)
- ◆ "인천발 KTX 조기 착공" 목소리 커진다 (경기일보01A)
- ◆ 최저가낙찰의 하상 ... 공사비 되레 1조 ↑ (매일경제2)
- ◆ 도·시·군의원 새누리 당사 앞 연합집회 (강원도민일보2, 한국일보27A)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勞使政 타협 대상이 아니다" (조선일보B2, 중앙일보B1 등)
- ◆ "공기업 복지포인트 증여세 수백억 미납" (강원일보2)
-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말로만 (매일경제6)
- ◆ 민원주 "공공기관 4년간 임금 83억원 체불" (파이낸셜뉴스10, 인천일보4)
- ◆ 호적 생년월일 2~3개월 늦춰 정년 3년 늘린 공기업 직원들 (경향신문8, 매일신문4)
- ◆ 철도공단, '베트남 철도학교' 운영... 노히우 전수 (뉴스1, 아주경제, 충청일보, MTN 등)
- ◆ 유라시아 공동 변경 토대... TKR-TSR 연결 프로젝트 (연합뉴스)
- ◆ '늘어난' 철도시설 '턱없이 모자란' 정비인력 예산 (파이낸셜뉴스)
- ◆ 中, 이제는 미국 지하철 사업까지 입찰(이데일리)

2015. 09. 09. [수]

- ◆ 호남 KTX 2단계 공사 속도 낸다(무등일보1, 전남일보1,3,광남일보2,광주일보1)
- ◆ 경원선 1단계 착공 630억... 병사 봉급 15% 인상(파이낸셜뉴스4)
- ◆ 추석 대비 임금체불 특별점검(아시아경제17,내일신문15,광남일보15)
- ◆ 한타 대전공장 대통령상 금 · 은 차지(대전일보21)
- ◆ 예산 늘어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내년 마무리(부산일보4)
- ◆ 도심철도 시설 이전 정부가 맡는다(국제신문1)
- ◆ 도로사업 7.8% 대폭 깎여, 鐵道도 3% 줄어(조선일보4,한겨레17,매일경제5,한국경제4)
- ◆ 정부 SOC 예산 88% 집행 매년 사무관 등 100여명 채용(서울신문11)
- ◆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55%, 기준 임금도 못받아(조선일보16,서울신문12)
- ◆ 장항선 개량 2단계 보령 남포 2, 3터널 착공(연합뉴스,아시아뉴스통신)
- ◆ 국토부,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모집(아주경제)

2015. 09. 11. [금]

- ◆ 中-러 "교통망 통합해야"... 차대통령 구상 호응(동아일보2)
- ◆ 국토부 SOC 투자 줄이고 복지는 대폭 확대(파이낸셜뉴스22)
- ◆ 신인산선복선 전철 2023년 들어서... 여의도서 학교까지 30분 만에 도착(조선일보F02)
- ◆ 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 일부 변경 추진(경향신문14A)
- ◆ 철도공단, 'KR안전지도사' 신설(중부매일5)

- ◆ 영동역 지하차도 마무리 오는 23일 개통(충청투데이17A)
- ◆ 철도시설 부지 비즈니스 단지 개발 땀 1조 3천943억 확보(부산일보3)
- ◆ "홍성역 주변 개발 사업성 있다"(대전일보14)
- ◆ 임금피크제 없는 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을 절반 축소(동아일보B02)
- ◆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마무리"(서울신문3)
- ◆ 임금피크제, 청년채용 도움되네(매일경제26)
- ◆ 철도공단 안전파수꾼 'KR안전지도사' 신설(연합뉴스,아주경제)
- ◆ 철도공단 의정부·인천 행복주택 300여 가구 건설 승인(연합뉴스,news1,KBS,아주경제)
- ◆ SOC 예산 구조조정...신규사업 줄지만 공약사업은 그대로(news1)
- ◆ 북한 무역창구 연결 中 고속철 3개 완전개통 눈앞(연합뉴스)

2015. 09. 14. [월]

- ◆ GTX 추진해 인천을 국제도시로(한국경제32)
- ◆ "지역균형발전 선도할 충청선 필요"(중도일보4)
- ◆ 김윤덕 의원 "용산~인천공항 철도 연결 재추진" (전북일보3)
- ◆ 남부내륙철도 경제성 평가 낮게 나온 이유 있었네~(경남신문2)
- ◆ [국감 자료실]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 문제(대전일보4)
- ◆ 출퇴근 시간 KTX 요금 오른다(서울경제1)
- ◆ 총리실 뺀 정부세종청사 도청 무방비(대전일보5,경기일보4)
- ◆ 勞使政 "임금피크 도입해 靑年고용 확대" (조선일보1,6)
- ◆ 印尼 고속철 계획 폐지,한국엔 기회(매일경제37)
- ◆ 해외 의존하던 철도부품 원스톱 지원으로 국산화(한국경제19)
- ◆ 철도공단, 2015년도 하반기 '철도안전 캠페인' 전개(대전투데이,국제뉴스)
- ◆ 中, 양쯔강 동서로 잇는 고속철 건설...22개 도시 연결(연합뉴스)
- ◆ 고속열차 문에 끼여 승객 타박상...철도공사 직원 신고유예(NEWS)

2015. 09. 15. [화]

- ◆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 'Rail Network' 구현(한국경제C06)
- ◆ 원주~강릉철 운산동 구간 공법 변경(강원도민일보12)
- ◆ 모습 드러낸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한겨레10C,파이낸셜뉴스25,경상일보8)
- ◆ 시내버스에 편중된 대중교통, 트램 도입으로 분산시켜(경상일보11)
- ◆ "청년 일자리 5년간 82만개 늘 것"(동아일보)
- ◆ 공공기관-평가단 '한통속' 의혹(서울경제4)
- ◆ 임금피크제 청년 일자리 확대 도움안된다(충청투데이4)
- ◆ 원주~강릉철도 연약지반 구조물 공사 본격 착수(연합뉴스)
- ◆ 철도공, 충북선 하부 횡단 '공평2지하차도' 신설(충남일보)
- ◆ 잇단 유찰...이번엔 주인 찾을까(건설경제)

- ◆ 경기도, '진접선 등 3개 광역철도 운영비 최적화방안' 마련(news1)

2015. 09. 17. [목]

- ◆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 막바지 시력(강원일보23)
- ◆ 동서4축 고속도 내년 완공 땀 상주~영덕 1시간 안에(매일신문3)
- ◆ 철도시설공단도 1950억원 분다(중도일보4)
- ◆ 철도공단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충청투데이9)
- ◆ 인천 부평역 달천 크레인... 1호선 멈춰 퇴근길 대란(조선일보12)
- ◆ 500억 이상 공사 '청년 기술자' 의무 배치(서울신문3)
- ◆ '11년 운행' 낡은 경부선 KTX 특실, 청타이프로 땀(서울신문14)
- ◆ KTX 광명역 1일 열차운행횟수 '으뜸'(경인일보20)
- ◆ 부산-김해경전철 승객 개통대비 50% ↑ (한국일보26C)
- ◆ 공공기관 부채비율 연내 200% 밀으려(동아일보B4)
- ◆ 2000만원 기부하고 매달 월급서 20%씩 떼기로(조선일보4)
- ◆ [강원포럼]원주~강릉 철도, 강원 꿈 열다(강원일보7)
- ◆ [사설] 인천발 KTX 서둘러야 한타(인천일보11)
- ◆ 경부·중앙·대구·동해남부선·경부고속철도 연계시대 열려(국제뉴스)
- ◆ 인천발 KTX 이르면 내년 착공...인천~부산 2시간(OBS)
- ◆ 청주시의회 KTX오송역 개명 논의 제동...어론조사 예산삭감(연합뉴스)
- ◆ [대구] 대구 국가산단~경부선 잇는 산업철도 건설 추진(YTN)
- ◆ KTX광명역을 통일한국의 교통·물류 거점역 육성 건의(YTN)

경조사

국토부 파견 김흥권 차장 빙모상

□ 발 인 : 2015년 9월 7일

기술본부 차장처TF 서성호 처장 빙모상

□ 발 인 : 2015년 9월 11일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 김민중 사원 조모상

□ 발 인 : 2015년 9월 14일

감사 김형원 상임감사 모친상

□ 발 인 : 2015년 9월 17일